

'익산 산업' 신성장동력 사업 활발

홀로그래프 예타 통과로 핵심기술 개발 총 사업비 1817억8000만원 투입

익산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 발굴에 주력하면서 지역 산업구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올해부터 미래 핵심기술인 홀로그래프와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개발 사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방침이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기술인 홀로그래프 산업이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총 사

업비 1817억8000만원이 투입되며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5대 핵심기술 개발과 3대 실증화 사업이 추진된다.

문화재 복원 분야인 홀로그래프 헤리티지, 상용차, 불량검출 분야 서비스인 홀로그래프 팩토리 부문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앞서 사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300억 원 규모의 홀로그래프콘텐츠 서비스센터가 옛 마동주민센터 부지에

올 연말까지 건립을 목표로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산업도 올해 정부 예산이 편성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총 523억6000만원이 투입되며 육성 기반시설인 기술지원센터 등이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의 ECO융합섬유 연구원 부지에 건립된다.

지난 6월 설계용역 발주에 들어간 센터는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의 기술개발과 시제품 생산 및 시험평가 등 연구지원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액정기반 진동감쇄를 비롯해 열저

항성 방열소재 개발, 열전도 차단소재 개발 등 9개 R&D과제가 수행된다.

이를 토대로 전국 최초 홀로그래프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개발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관련 일자리 창출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해당 사업들이 지역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홀로그래프와 안전보호 융복합 사업 등 익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성공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여름철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주의 당부

군산시보건소, 9월까지 발생위험 높아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는 폭염이 지속되고 휴가철로 인한 국내외 여행 등 여가 및 단체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에 대한 주의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란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장관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하절기인 5~9월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여름철은 비브리오패혈증,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캄필로박터 등의 병원균 증식의 적합한 환경이다. 이러한 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할 때 감염병 발생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현황은 노

로바이러스 45%, 병원성대장균 9.7%, 살모넬라균 5.6%, 캄필로박터균 4.8% 순으로 나타났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주요 원인에는 장염비브리오균(세균에 오염된 어패류 섭취), 병원성대장균(배추, 겉절이, 샐러드 등 채소류), 살모넬라균(오염된 계란이나 김밥 등 복합조리식품), 캄필로박터균(삼계탕, 채소류 등의 교차오염)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음식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예방수칙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

기·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 등이 다.

보건소 관계자는 "하절기에는 기온 상승과 국내외 여행객이 많아지는 시기로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이 우려된다"며 "손씻기,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 "지난 5월부터 24시간 하절기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 시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대응체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개인위생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주민대상 사전예방홍보를 위해 유통인구가 많은 거리 5곳을 선정하여 예방수칙 홍보 현수막을 게시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내일부터 여름철 바닥분수·물놀이장 운영

익산시는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장과 함께 체육공원에 설치된 바닥분수 운영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폭염을 대비해 도심 내 체육공원에 설치된 바닥분수 운영시간이 확대된다.

영등시민공원(영등동)과, 배산체육공원(묘현동), 수도산체육공원(동산동)에 각각 설치된 바닥분수 운영시

간을 해당 기간 동안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50분 운영 10분 휴식) 연장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물놀이장(어린이 풀장)을 오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각 체육공원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한 시민은 "방학 때 마땅히 갈 곳이 없었는데 여름마다 공원에 물놀이장이 생겨

따로 휴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좋다"며 반겼다.

익산시 관계자는 "올해 마른장마로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바닥분수를 확대 운영하고 물놀이장을 가동하기로 했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한여름 폭염기간 동안 도심 속에서 피서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익산시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버스노선 개편을 시도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개편을 추진한다.

11일 익산시는 소회의실에서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내·외적인 대중교통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중교통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추진하게 됐다.

이번 착수 보고회는 지역 대중교통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 가능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간선제와 수요응답형 버스도입 등 버스노선체계 개편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용역 수행기관인 (주)건화가 버스정류소 및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운영 체계 개선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용역은 2020년 6월 완료될 예정이며 시는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 및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시민을 위해 대중교통 수단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이다"며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합리적인 운영체계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16일 여성취업 우대기업 매칭데이

군산고용위기지원센터, 효림복지센터 등 8개 업체 참여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오는 16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대강당에서 '여성취업 우대기업 매칭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칭데이 채용규모는 행복한 노인요양원, (사)효림복지센터, 아이소리지역아동센터, 세경코끼리어린이집 등 약 8개의 업체가 참여해 약15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날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주최하는 여성취업인식전환교육 명사초청특강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며, 현장재용 또는 간접재용을 위해 1대 1면접이 이뤄진다.

이번 채용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여성 구직자는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신청 하면 되고 현장면접을 원하는 구직자들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를 지참해 행사 당일 기업 부스를 찾아오면 된다.

참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450-1307)로 하면된다.

박남균 센터장은 "지역 고용위기 상황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여성취업 우대기업 매칭데이를 통해 구직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매월 구인구직자를 위한 매칭데이를 운영하여 49명의 취업 성과를 낸바 있으며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중이고, 면접비 지원사업, 취업허브 되고 현장면접을 원하는 구직자들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 현장행정 추진

남부권도서관 신축부지, 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대상지 방문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구)는 익산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제218회 임시회 기간(7.8~7.19) 중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 요청에 따라 사전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심의를 펼치고자 진행한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남부권도서관 신축부지, 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를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기획행정위원들은 남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권도서관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말하며, 전국 최고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 신축사업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매일시장은 지역 전통시장 가운데 큰 상권이 형성돼 있지만 그간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았는데,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주차환경이 개선되면 방문객이 증가해 전통시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